

# “이재명에 대한 신뢰 지역발전으로 보답”

김윤덕 의원 “전북도민들이 주신 당에 대한 신뢰 감사  
실망 뒤로하고 한없이 받은 사랑, 전북발전으로 답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 갑) 의원은 10일 전주시 평화동 꽃밭장이 사거리에서 도민과 전주시민들에게 감사 인사

를 전하며 “결과에 실망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보여준 신뢰와 열망을 담아 전북발전으로 보답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10일 오전 8시부터 전주 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평화동 꽃밭장이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겠다고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병도·진형석 도의원 김운철·이기동·김원주·송승용·최홍철·이남숙 전주시의원 등 전주 갑 시·도의원들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비록 이번 대선에서 0.8% 포인트 차로 아쉽게 졌지만, 도민과 전주시민이 보여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굳건했다”며 “아쉽게도 지난 일은 뒤로하고, 전주시민과 도민의 사랑을 전북발전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새만금을 축으로 한 전북 경제발전, 3중 소외를 벗어나 전북민의 독자적 경제권 형성 등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며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도민의 사랑과 열망이면, 반드시 전북 대변환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라도 전북형 메가시티 구축, 금융중심지 지정, 광역교통망계획 전북 몫 찾기 등을 통해 전북의 대변환을 이루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며 “실망을 뒤로하고 도민이 하나로 똘똘 뭉쳐 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를 완성하자”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대선 선거벽보 철거 중’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된 1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  
송영길 “패배 책임질 것”

이재명, 당 상임고문 위촉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0일 제20대 대선 패배와 관련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하며 “최고위원들도 함께 사퇴 의사를 모아왔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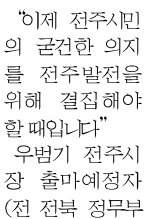
그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치열했던 대선이 끝났다”며 “이재명 후보 고생하셨다. 윤석열 당선인 축하한다. 국민 통합 위해 애써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견에는 최강욱, 강병원, 김영배, 백해련, 전혜숙, 김용민, 이동환, 김주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는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뉴시스

## “위대한 전주 시민, 재결집해야”

우범기 전 정무부지사, “정권교체로 전주발전 노력 절실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 만드는데 능력·인맥 총동원”



“이제 전주 시민의 굳건한 의지를 전주 발전을 위해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전 전북 정무부지사·사진)는 10일 다시 출근길 ‘길거리 콘서트’에 나서 “전주 발전을 위해 운동화 끈을 더 단단히 묶고 뛰겠다”며 전주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선기간 동안 ‘길거리 콘서트’를 펼쳐왔던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출근길 시민들에게 “이제 ‘잘 사는 전주’ 실현을 위해 시민의 마음을 모으자”며 “준비된 정책을 꼼꼼히 다듬어 더 큰 전주의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 시민들의 희망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정권교체로 전북과 전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전주 시민의 요구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주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만드는 데 제가 가진 능력과 인맥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주 시민께 다시 한 번 ‘골절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북 직능·사회단체 3만여 회원들의 지지선언은 행동하는 집단지성의 표본이 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범기 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원들의 열의를 하나로 모아 주신 김성주 도당위원장과 김운덕 국회의원 양경숙 전주를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전주 시민의 열원이 이뤄지는 그 날까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문 대통령-윤 당선인 핫라인 구축 ‘관심집중’

회동 시기 이르면 내주 관측  
당선인 인수위 구성 선결과제  
코로나19·소상공인  
청사 이전 등 의제 거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인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 회동을 구체화하면서, 회동 시기와 의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8분가량 윤 당선인과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나눴다. 청와대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많이 가르쳐 달라”며 “빠른 시간 내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답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직통망) 구축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낮 12시께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 수석을 접견했다.

유 실장은 이 자리에서 먼저 축하사를 전하면서, “(당선인) 더 바쁘시니까 날짜를 편한 날 주시면 거기에 (회동) 맞추겠다 하겠다”며 문 대통령 의중을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일정이 있으시고, 저희도 오늘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연락이 필요할 경우 이 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간에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윤 당선인은 “장 비서실장과 이 수석님이 계속 통화하시면 되겠다”며 “두 분이 (국회에서) 범사위도 같이했고 하니 제가 중간에서 아주 편하겠다”고 말했다.

양측 간에 회동이 공식화된 가운데, 일각에선 이르면 다음 주에 성사될 것인 전망이 나오지만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대

통령인수위원회 인선 작업 등이 선결과제로 떠오르면서, 인수위 출범 시기에 따라 회동 일정도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예상되는 회동 의제로는 민생·경제 측면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원 손실보상 등이 우선 거론된다.

윤 당선인 후보 시절 내세운 방역패스 철폐, 24시간 영업 등은 오히려 미르 번개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논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50조원 손실보상의 경우 추경예산(추경)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가 국채발행과 세출조정으로 대립한 만큼, 실제 테이بل에 올라와도 양측이 내심 있는 결론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아젠다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 건의에서 성사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주도한 인물이 윤 당선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자해지’ 측면도 있지만, 사법처리 과정에서의 ‘관계’로 결려온 부분도 고려 대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지난해 12

월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이 전 대통령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박 전 대통령 사면 당시 국민통합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밖에 윤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 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국내외 현안이 두루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열흘 내에 이뤄졌다.

지난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박근혜 당시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인수안 등 경제 문제를 협의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9일 만인 12월28일 이명박 당시 당선인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노 전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두 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정부조직법 개정 요구와 대통령기록물이관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이 국정 현안을 두고 이같은 갈등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새 정부에 국정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차기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 예산 반영을”

문승우 도의원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총력대응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및 사업화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군산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군산항은 하구둑 항만의 특성상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확보는 필수이며, 현재 사용 중인 금년도 투기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추가 투기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군산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제2준설토 투기장이 꼭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 및 사업화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서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송지용 도의회 의장

전주소상공인연합회 감사패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안주1)이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장명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임원진은 10일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송 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연합회는 송 의장이 ‘한옥마을내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지원하는 등 전주시지역 소상공인 단합과 협업에 앞장 서주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도 적극 건의했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주시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지역 경제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만큼 건강하게 유지되고, 원활하게 경제활동이 이뤄

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